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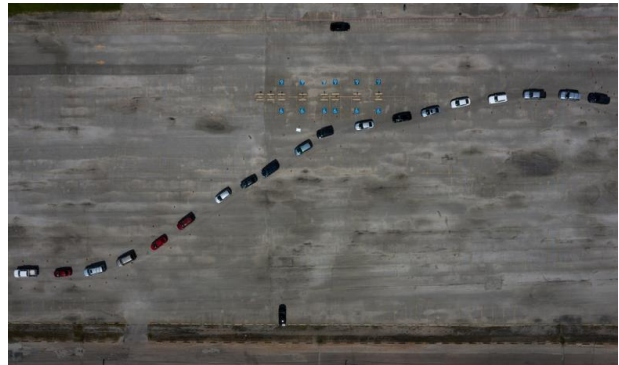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글로벌 증시 향방, 앞으로 3 개월이 중요
- ◇ (초점)-쏟아지지 않는 외환 수급 무게 중심..역내 수급 영향력 축소는 우려
- ◇ (초점)-CD 금리 보고 증권사, 고시제도 변경에 부담 가중..인센티브 도입될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준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주민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아드레스 라티프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1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4.5	-0.5%	-4.0%	-3.5%	유로	1.1298	0.4%	0.8%	-2.3%
100엔 대비	1,122.7	-0.7%	-5.4%	-4.4%	엔	106.89	0.6%	1.6%	0.9%
유로 대비	1,356.2	-0.6%	-4.6%	-1.3%	위안	6.9924	1.1%	-0.4%	-1.3%
위안 대비	171.37	-1.0%	-3.3%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6,075.30	1.0%	-8.6%	22.3%
코스피	2,150.25	-0.1%	-2.2%	7.7%	나스닥	10,617.44	4.0%	18.3%	35.2%
코스닥	772.81	2.7%	15.4%	-0.9%	S&P500	3,185.04	1.8%	-1.4%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47.25	2.7%	-1.0%	15.8%
국고채 3Y	0.849%	1.1bp	-51.1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25%	1.0bp	-35.5bp	-40.4bp	미국채 2Y	0.157%	0.2bp	-140.4bp	-93.7bp
국고채10Y	1.397%	1.0bp	-28.6bp	-26.5bp	미국채 10Y	0.643%	-2.6bp	-126.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55	-0.2%	-33.6%	34.5%	한국 5Y	24.5bp	-0.4bp	3.4bp	-17.0bp
금(현물)	1,798.31	1.3%	18.5%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253.73	3.1%	-9.3%	4.8%	중국 5Y	44.3bp	-0.6bp	13.6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7월 13일(월)>

- 금감원,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금감원,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12:00)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12:00)

### <14일(화)>

-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 반 회의(10:30)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15일(수)>

- 한은, 6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통계청, 6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10:00)
- 한은, 5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16일(목)>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및 총재 기자회견
- 기재부, 부총리 세법개정안 브리핑(16:00)

### <17일(금)>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0:00), 1차관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14:00)
- 기재부, 최근경제동향(10:00)

### <18일(토)>

- 기재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 화상회의(19:3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7월 13일(월)>

- 중국, 6월 외국인 직접투자 (~20일)

### <14일(화)>

- 미국, 6월 연방예산 (03:00)
- 일본, 6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5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21:30)
- 중국, 6월 수출입 · 무역수지 (시간 미정)

### <15일(수)>

- 일본, 7월 로이터 단칸 (08:00)
- 일본, 일본은행 금리 결정 발표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6월 수입 · 수출 물가 (21:30)
- 미국, 6월 산업생산 (22:15)

### <16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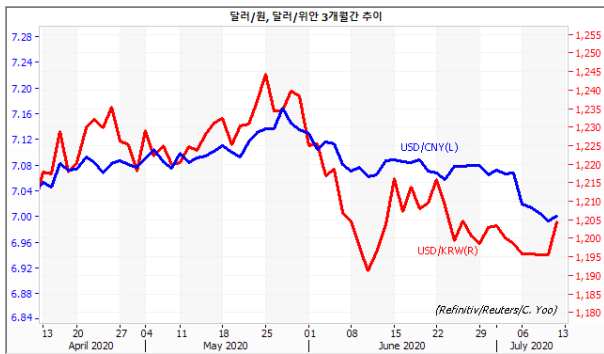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03:00)
- 중국, 6월 주택가격 (10:30)
- 중국, 6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00)
- 중국, 6월 산업생산 · 소매판매 (11:00)
- 중국, 2분기 GDP (11:00)
- 유로존, 5월 무역수지 (18:00)
-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발표 (20:45)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7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21:30)
- 미국, 6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5월 기업 · 소매재고 (23:00)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17일(금)>

- 미국, 6월 건축허가 · 주택착공(21:30)
-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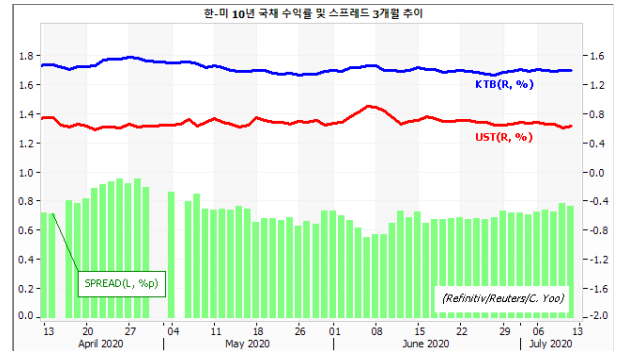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방향성을 잃어버린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최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95-1210 원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와 경기 회복 및 치료제 개발 기대가 맞서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화 역시 최근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 수급 따라 환율이 오르내리지만, 수급 또한 대체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만큼 수급 영향력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주중 국내외 지표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주목되는 주요 경제지표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매판매를 비롯해 중국의 6월 수출입과 2분기 GDP 결과 등이다. 지난 1분기 중국 경제는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인해 6.8% 역성장한 바 있다.
- 국내외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다. 일본은행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만 이들 회의에서 정책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화 영향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민보고회의 형태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국내 증시 반응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16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와 맞물리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지난주에 국채선물시장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외국인의 매매 방향도 관건이다.
- 좁은 범위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매주 초반 국고채 입찰을 기점으로 헤지 매도가 늘어난다. 하지만 입찰을 무난히 넘기면 다시 대기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이 안정되는 식이다.
- 이번 주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중요하다. 지난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금통위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 하지만 14일로 예정된 '한국판 뉴딜' 발표 역시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뉴딜이라는 프로젝트명이 이미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정부에 의한 수요 창출'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 수십만 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다.
- 금통위가 부동산을 이유로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주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분석)-글로벌 증시 향방, 앞으로 3개월이 중요

(로이터) - 중앙은행의 부양책은 상반기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 앞으로 증시의 상승 여부는 3분기 경제지표와 기업 순익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부에 달려있다.

20 조 달러에 달하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부양책으로 올해 2월 20일에서 3월 23일 사이 35% 급락했던 세계 증시는 거의 회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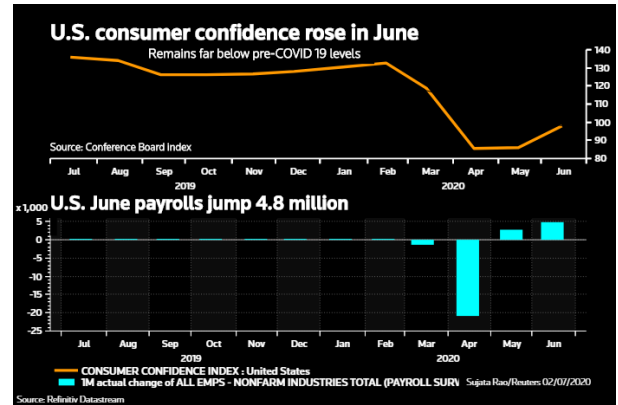
MSCI 세계주가지수는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10% 이내로 다가섰다. 미국 나스닥지수와 중국 선전지수도 수년래 최고치 또는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고용·제조업 지표는 이런 추세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상황이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하다.

경제 지표는 과거를 보여준다. 따라서 4월에서 6월 사이의 지표들은 외출제한에 따른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뒤 3-4월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월 이후의 지표들은 반등 추세가 견고한 것인지를 확인해줄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셀 실버스텔론 나인티원 선진시장 FX 헤드는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상황에 있지만 3분기가 끝날 때가 되어야 우리는 어느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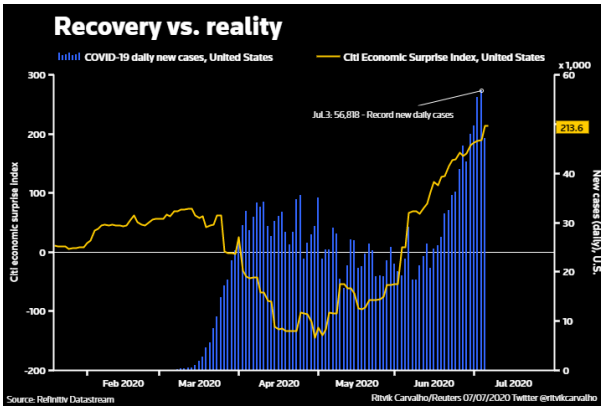
그는 시장이 악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면서 "당신이 만약 시장이 향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지표들이 미국내 기록적인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와 외출제한 재실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실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현실의 진정한 상황을 가려버릴 수 있다. 다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지원책들은 7월 말 이후 중단될 것이다.

상식과는 달리 주가 상승과 경제 수축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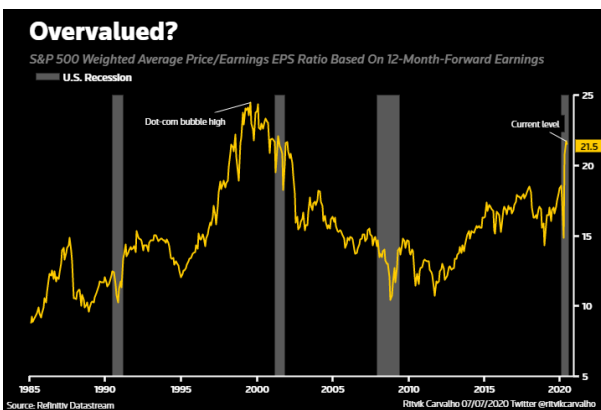
앤드류 시트 모간스탠리 전략가는 "지표의 변화율이 지표 수준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시장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게는 강세를 보이는 증시와 경제 전망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다. 씨티그룹 전략가들은 2021년 말 주당 순익 예상치가 30% 정도 고평가됐다고 말한다.

이는 세계 증시가 예상 순익 대비 17 배가 아닌 24 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순익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2분기 실적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순익은 각각 40%,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트 전략가는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이 2분기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부양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신호는 없다. 시티그룹은 6조 달러 규모의 중앙은행 자산매입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폭일 것이다. 현재까지 약 50만 명이 사망했고 이중 1/5은 미국에서 나왔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결정적일 것이다.

데이비드 아르노 캐나다 라이프 펀드 매니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시장의 리스크 심리는 온오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간단하다. 코로나 19가 시장을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초점)-쏟아지지 않는 외환 수급 무게 중심..역내 수급 영향력 축소는 우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포에 크게 쓸렸던 환율이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는 수급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때때로 원화의 변동성을 다소 키우기는 하지만 사실상 달러/원 환율은 지난 2분기부터 이미 박스권 장세로 진입했고, 이같은 흐름은 3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2분기 중 1220-1240 원 범위에서 주로 움직였던 환율은 3분기를 앞두고 1190-1220 원으로 박스권이 한 차례 내려선 이후 현재 1200 원을 중심으로 보폭이 더욱 좁아져 있다.

이같은 환율 움직임에는 크게 쏟아지지 않은 수급의 힘이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쏟아지지 않는 수급 중심주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중 비거주자 NDF 순매도 규모는 164.7억달러로 직전 분기의 19.1억달러 순매도에 비해 급증했다.

분기별 비거주자 NDF 매매 추이를 보면 지난해 4분기 199.8억달러, 올해 1분기 19.1억달러, 2분기 164.7억달러로 3분기 연속 순매도했다.

이에 반해 국내 수급 주체들은 달러 수요 우위의 수급을 형성했다. 국내 기업의 선물환 거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124억달러, 올해 1분기 17억달러, 2

분기 88 억달러로 순매입 추세를 나타내 역외 투자자들과 반대 방향의 수급을 형성했다.

한편 외국인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도 쓸림이 제한됐다. 외인 주식자금은 6 월까지 5 개월째 순유출됐지만, 채권자금은 6 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물론 세부 거래에 따라 원화에 미치는 일시적 영향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외인 자본거래는 비교적 균형을 맞추며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 역내 수급 영향력 축소 우려

국내 기업의 선물환 거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올해 2 분기 선물환 매입 규모는 190 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40 억달러 줄어든 한편 선물환 매도는 102 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111 억달러가 급감했다. 그 결과 2 분기 중 선물환 거래 규모는 293 억달러로 2009 년 2 분기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선물환 매도 규모는 2005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19 에 따른 수출입 감소 영향이라면서 "특히 수출기업이 환 헤지에 더욱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수출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거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 분기에 수급 쓸림이 없었더라도 역내 수급 영향력이 축소된 점은 우려할 만하다. 안정적인 경상 수급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대외 여건 따라 환율이 변동성을 키울 여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반적인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조선사 수주 등과 같은 규모 있는 수급이 제한되면서 역내 수급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그렇다면 방향성을 두고 거래하는 역외 투자자들 따라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점)-CD 금리 보고 증권사, 고시제도 변경에 부담 가중..인센티브 도입될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내년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고시 체계가 크게 달라지며 수익률보

고 증권사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센티브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있다.

해묵은 CD 고시금리 경직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 목표아래 증권사들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도 CD 고시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여부를 놓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 CD 고시제도 변경에 증권사 부담↑..합당한 보상 필요

올해 11 월로 예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될 새로운 CD 금리 고시 체계는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 1 월부터 산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CD 플러스(가칭)는 발행, 유통금리를 고시금리에 반영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만기 80 일~100 일인 CD 거래의 경우 91 일물로 인정되고 특히 만기 2 개월~5 개월에 해당하는 CD 가 발행되거나 유통될 경우 선형 보간법을 이용해 고시 금리 추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CD 금리 고시를 담당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활용할 만한 CD 발행, 유통이 없는 경우 '전문가 판단'을 통해 고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남기도록 한 것이다.

현재 대다수 고시 증권사의 경우 부서에서 경력이 가장 낮은 순으로 고시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회사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고시 금리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CD 고시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자리를 옮기더라도 일관성 있게 CD 금리가 산출, 보고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분명히 마련하고 금리산출 근거를 모두 증빙으로 남기도록 했다.

문제는 시스템뿐 아니라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의 행태 변화가 가능할 것이냐다. 지금도 고시담당자가 CD 금리를 판단할 때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증권사 내부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반영하

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CD 금리 보고회사로 선정된 증권사들에 대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CD 고시 증권사들의 경우 거래량 상위 10 개사를 대상으로 금투협이 지정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미미해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이다. 얼마 되지 않는 거래량 때문에 CD 고시 담당으로 배정이 된 것도 모자라 일방적인 비용지출까지 강요당할 경우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고채전문딜러들에게 비경쟁입찰 옵션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일정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부장은 "전문가 판단 등 증권사에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합리적일 듯하다"고 말했다.

#### ▲당국 "인센티브 검토중"

금융위와 금투협은 CD 고시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CD 고시 증권사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CD 고시를 담당하는 증권사들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센티브를 전혀 뜬금없는 내용으로 줄 수는 없다"며 "정책과 연관된 인센티브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도 "수 천조가 거래되는 시장의 지표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우리도 알고 있다"며 "증권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단기금융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CD 전문딜러제도 도입 등도 가능한 옵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8월부터 예정하고 있는 레포 유동성 규제와 관련한 일부 혜택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CD 발행과 유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시추정 방법론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CD 시장을 PD 시장처럼 만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주택채권시장에 매도, 매수전담 증권사들이 있는 것처럼 몇 개 증권사를 정해 CD 거래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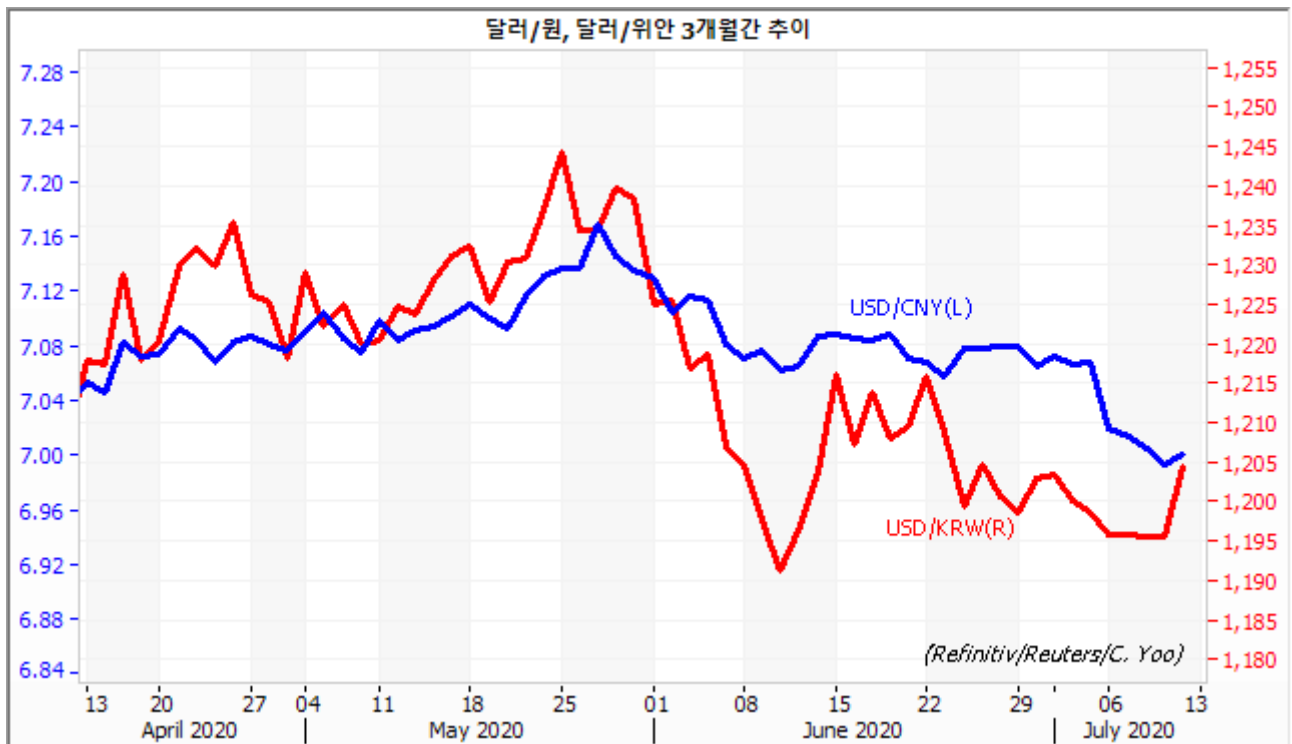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고시 증권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CD 금리를 더 정교하게 산출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문제는 은행"이라며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을 하고 싶어도 시장이 있어야 조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CD를 발행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증권사들이 없는 시장을 열심히 평가해 금리를 뽑아내는 것보다 신뢰 구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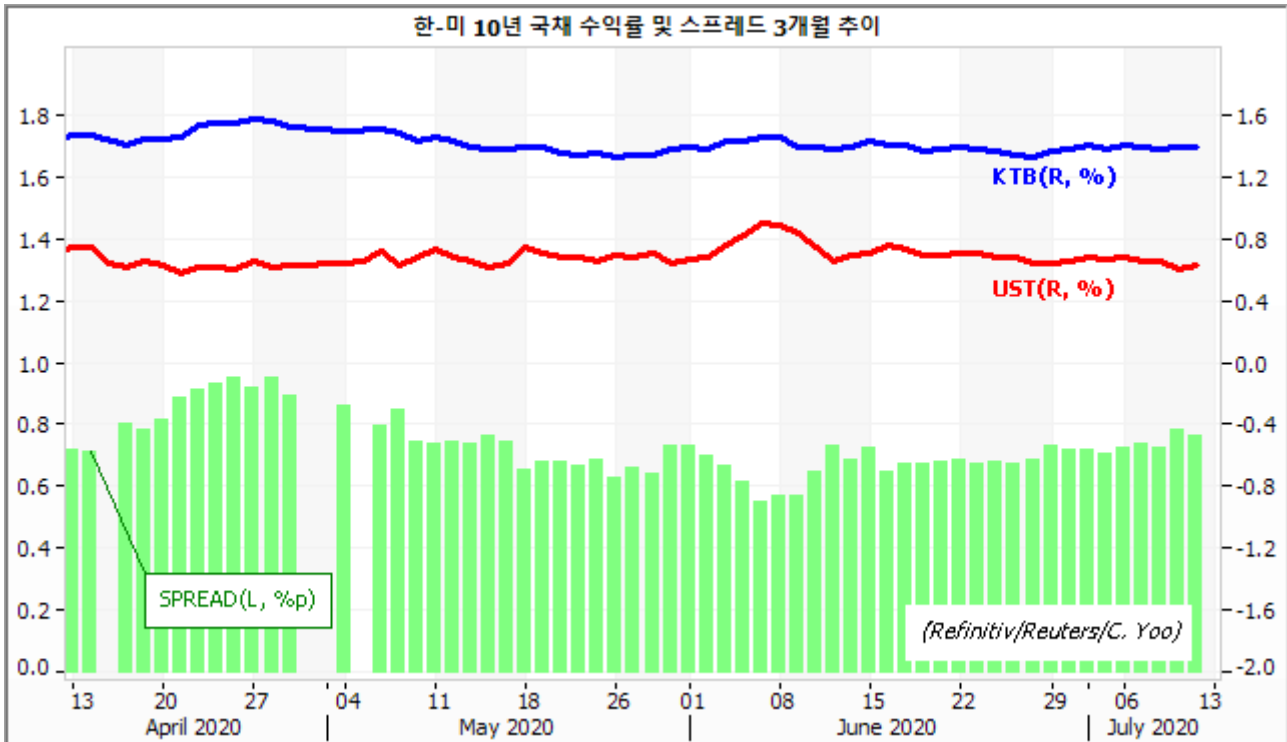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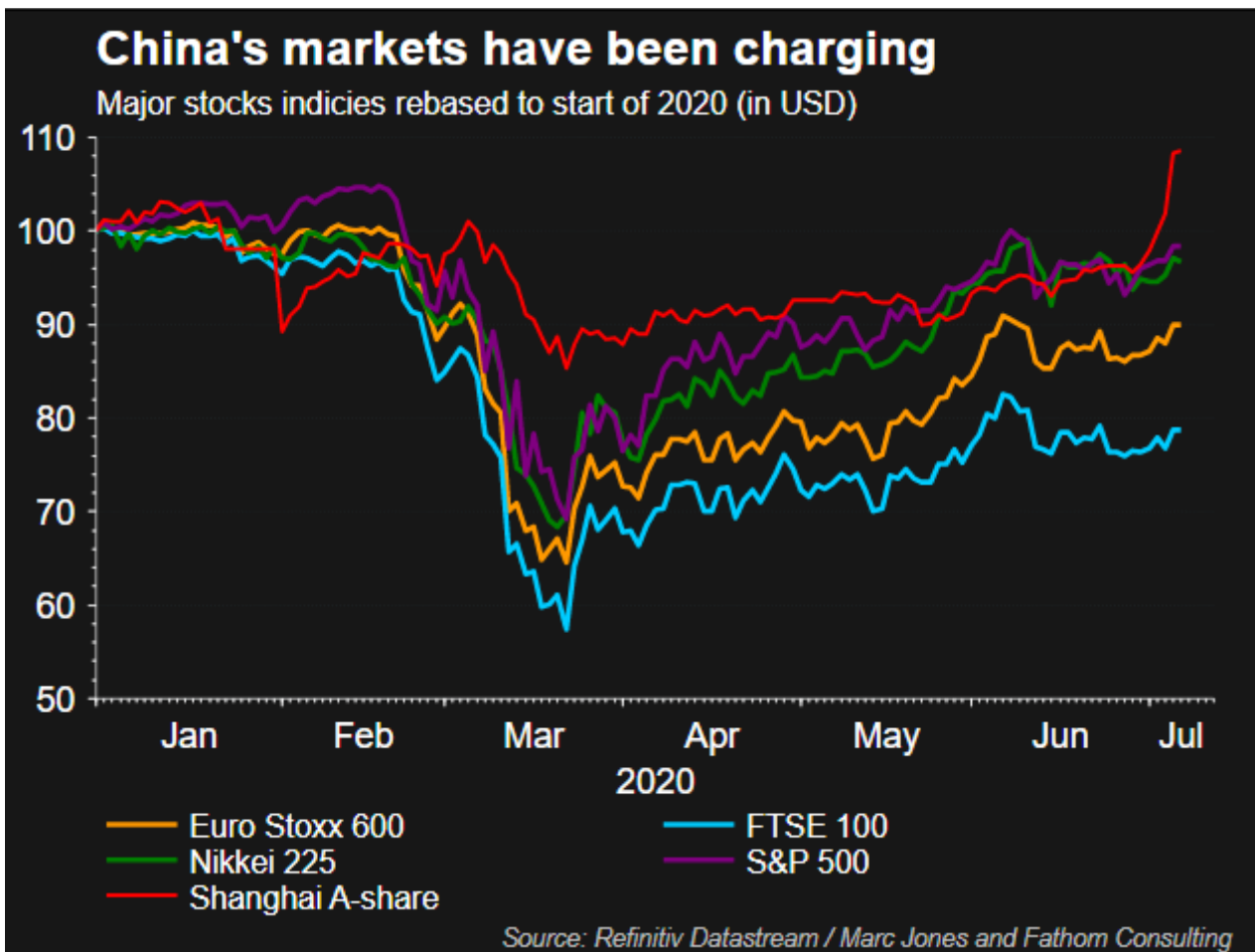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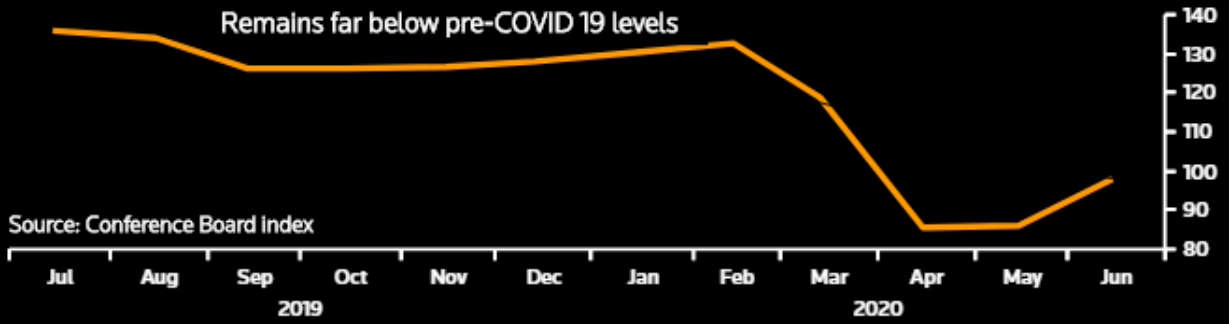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U.S. consumer confidence rose in June

Remains far below pre-COVID 19 levels



Source: Conference Board Index

## U.S. June payrolls jump 4.8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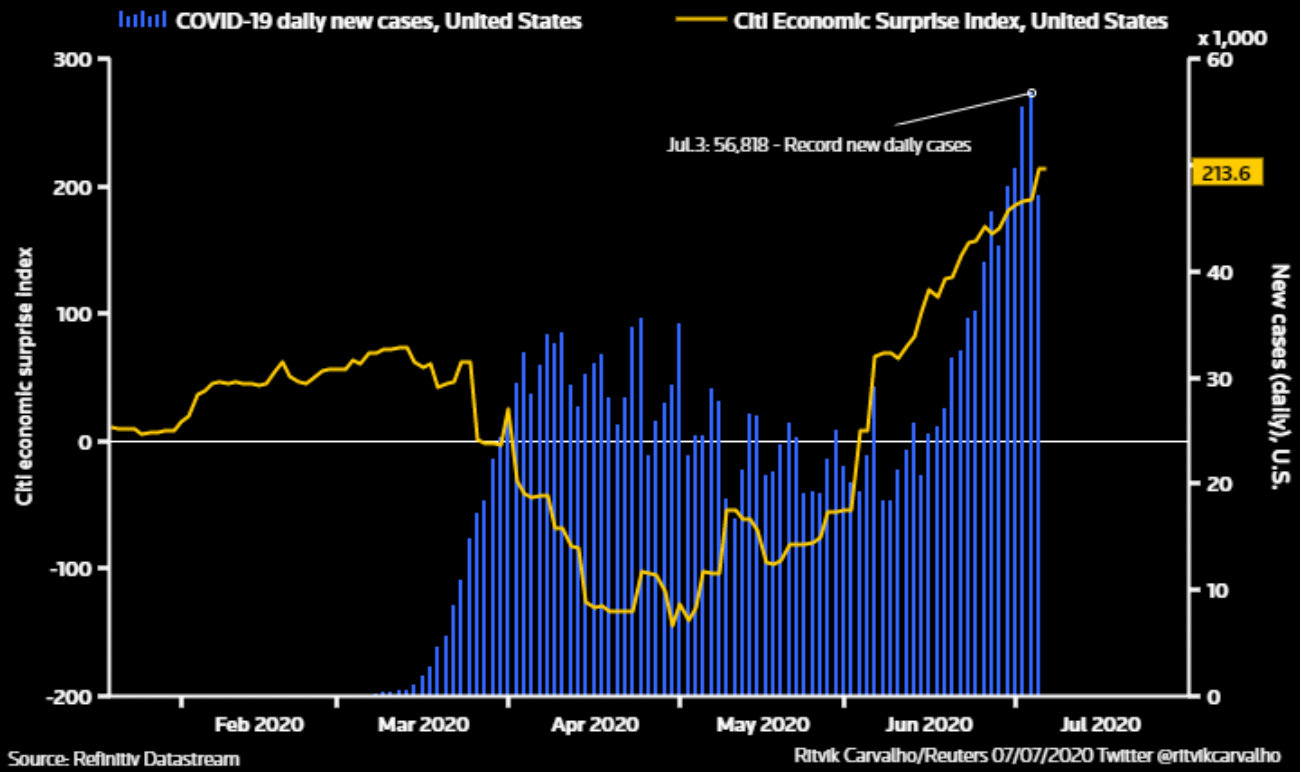
CONSUMER CONFIDENCE INDEX : United States

TM actual change of ALL EMPS - NONFARM INDUSTRIES TOTAL (PAYROLL SURV Sujata Rao/Reuters 02/07/2020

Source: Refinitiv Datastream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Recovery vs. reality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Overvalued?

S&P 500 Weighted Average Price/Earnings EPS Ratio Based On 12-Month-Forward Earnings

■ U.S. Recessio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